

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유비쿼터스와 의사결정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게 될 제주대학교 김민철 교수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과 유비쿼터스와 의사결정이라는 콘텐츠로 만나서,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.

본 수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, 유비쿼터스 개념이 주는 시사점을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, 기본적으로 본 수업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. 따라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디지털경제에서 출발을 하고, 그 디지털경제의 요소인 데이터, 정보, 지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.

특히, 현재의 디지털경제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런데,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중심기기 내지 컨트롤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러한 스마트폰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기로 활용이 됩니다.

의사결정은 '0'과 '1'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'0'과 '1'은 공간과 시간으로 설명이 되고, 그 '0'과 '1'은 컴퓨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. 여기서 흥미롭게도 '0'과 '1'은 중국 고전철학인 주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그 주역에서 현대물리학인 양자역학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, 그 양자역학은 양자컴퓨팅의 생성 근원이 된 것입니다.

이제 그 양자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었고, 그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올려놓게 됩니다. 특히, 이러한 지혜는 미래와 깊은 생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,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

이러한 강의 목표와 결론을 만들기 위해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강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부디 본 수업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개념이 의미하는 참된 가치를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느끼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 불행하지 않는 즉, 행복한 인생을 즐겼으면 합니다. 그러면 수업시간에 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